



해외양돈뉴스

- 홍 보 부 -

미국 미육우협, 대한(韓) 쇠고기 수출 보증 4억불 증액 요청

미육우협회(NCBA)는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 신용보증한도 4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해 달라고 미농무부에 요청했다.

3월 19일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농무부가 이미 배정한 대한 농산물 수출 신용보증한도 11억 달러 가운데 쇠고기 수출용으로 배정된 1억 달러가 이미 소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외환금융위기를 겪고있는 한국은 외환부족으로 농산물 수입이 어려워지자 미국산 소맥과 대두, 면화, 쇠고기 등을 수입하기 위해 당초 16억 달러의 농산물 수출 신용보증한도를 배정해 줄 것을 미농무부에 요청했다.

98년 돼지고기, 쇠고기 수출은 10만톤 증가한 150만톤 예측

미농무성이 발표한 98년도의 농산물 무역예측에 의하면 미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작년에 비해 22억\$ 증가한 380억\$로 사상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가축·가금 가공제품의 수출은 114억\$로 전년보다 6억\$가 증가해 과거 최고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돼지고기, 쇠고기 수출은 150만톤, 43억\$를 예측하고 있어 전년 대비량으로 10만톤, 금액으로 3억\$를 상회, 사상최고를 기록한 96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대일수출은 돼지고기는 대만의 구제역 발생 영향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쇠고기는 전년도에 이어 계속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금류의 수출은 홍콩 및 러시아의 수출신장으로 8만톤 증가한 260만톤, 금액으로는 25억5천만\$를 예측하고 있다.

일본 '98 돈육수입 9.5%증가 예상

일본의 식육생산량은 1988년을 최고로 그후 감소경향이었으나 97년은 9년만에 증가로 전환되 310만톤으로 회복하였으며, 수입은 전년에 비해 약 10%가 감소한 224만톤에 머물렀다.

국산이 회복되고 수입이 감소한 것은 소비자의 식육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등이 국산 식육으로의 회귀현상으로 나타나 수입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98년의 식육 총수급동향 전개에 대한 일본 식육통신사의 추정에 의하면 국내생산은 다시 감소경향으로 돌아가 수입식육이 부족분을 보완한다는 종래의 경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입량은 엔화 하락등으로 전년대비 동 0.3% 감소한 91만톤으로 예측하고 수요규모는 동 0.7% 감소한 143만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98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128만톤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수입은 81만1천톤으로 동 9.5%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수요규모는 209만톤으로 동 3.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97년 12월의 돼지고기 수입 3만 677톤 중 냉장이 1만 607톤

일본의 97년 12월의 돼지고기 통관량은 3만677톤으로 전년동월비 29.6%가 감소하였다.

냉장은 전월보다 약간 증가한 1만607톤으로 동 8.6% 감소하고 냉동도 2만70톤으로 동 37.2%가 감소하였다. 냉장은 국별로 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7천960톤으로 동 47.3%가 증가하고 다음이 캐나다의 1천517톤(동 118.4%증가), 한국 1천48톤(동 133.2% 증가) 순위이다. 냉동은 덴마크가 4천753톤으로 동 142.0% 증가하고 미국, 한국, 캐나다 순으로 많았다. 기타 10개국에서 5천150톤으로 2.3배 증가하였다.

E 금년 돼지 생산 증가로 미국과 수출경쟁 치열할 듯

EU국가 대부분의 사육돼지 수효가 증가해 '98년 EU 돼지공급량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8년 EU의 돼지고기 국내총생산량(GDP)은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8년 1/4분기 EU 돼지공급량은 '97년 동기와 같이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어 2/4분기부터 3~4%의 급증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EU의 돼지고기 소비량이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공급량은 약 105%의 자급률을 나타내며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도 돼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추어보면 '98년 이들 지역을 제외한 제3국 진영에서 수출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98년 돼지가격 하락세로 출발

'98년 초 EU의 프라임급 돼지가격이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다. 가격하락의 주요 원인은 돼지 도축량 증가이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태국을 위시한

제 3국으로부터의 닭고기 수입량이 이례적으로 증가했고 그와 동시에 EU 지역내 쇠고기와 양고기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돼지가격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U 돼지가격 하락세는 지역내 모든 회원국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돼지 도축량 증가와 대체육류 가격하락이 맞물려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독일과 영국의 돼지가격 하락은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돼지 수출업계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독일 마르크화의 강세 여파로 피해가 예상된다.

대만 농민들 돼지고기 개방압력 반미 시위

타이완 돼지사육 농민 약 5천명은 지난 2월 11일 미국이 타이완에 돼지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데 대한 항의로 타이베이 주재 미대표부 건물에 돼지분뇨를 뿌리는 등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미대표부 앞에서 "미국돼지고기 수입 반대", "강대국과의 불공정 협상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돼지분뇨와 달걀을 던졌으며 "돼지고기 수입 관세를 현행 60%에서 15%로 인하하라는 미측 요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미대표부에 전달한 뒤 해산했다.

타이완 돼지사육 농민들은 워싱턴에서 진행중인 타이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에서 미국이 돼지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자 현 상황에서 시장이 열릴 경우 자신들이 파산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입관세 인하 유예를 요구해왔다.

타이완의 돼지사육 농민은 약 10만명이며 돈육가공 등 관련 산업 종사자는 80만명에 달한다.

독일 동북부 돈콜레라 창궐, 이틀새 2천두 살처분

독일 동북부 폴란드 접경지역에서 돈콜레라가 창궐, 지난 2월 26~27일 양일간 2천두를 살처분했다고 독일 농업 당국이 밝혔다. 전염성이 강하

고 치사율이 높은 돈콜레라는 지난 1월 독일 동북부 포메라니아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 인근 슬레스비히-홀스타인 지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메라니아 지역에서는 이미 지난 2개월간 4차례의 돈콜레라 발생 사실이 보고돼 8만2천두의 돼지를 살처분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바 있다. 독일의 돈콜레라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의 주요 돈육 생산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연합(EU)은 독일 동북부산 돼지고기의 수출금지를 심의하고 있다. 특히 EU내 주요 돈육 수출국인 덴마크는 자국 양돈산업 보호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 동독지역 현저한 사육두수 증가

독일은 97년 5월에 돈콜레라를 극복하고 8월에는 자돈 생산용 모돈수가 261만두로 전년비 2% 증가로 돌아섰다. 구 동독지역의 과거 2~3년 연속감소로부터 회복증상이 현저한 상태이며, 현재 구서독과는 대조적인 동향이다. 네덜란드가 97년 2월 돈콜레라 발생으로 생산·수출에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독일 동부지역에 투자해서 생산하는 네덜란드 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조사결과 명확해지고 있다.

FAO 광우병에 이은 또다른 소 전염병 조사중

유엔 가축질병 전문가들은 남미 지역에서 급속히 번져 소떼 수백만마리를 폐사시킬 위험이 있는 질병을 추적하기 위해 브라질과 볼리비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동물 보건 전문가인 브라이언 허시 박사는 지난 2월 20일 "상황이 불안하며 중남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FAO는 트리파노소마증으로 알려진 이 아프리카 소 질병이 하루에 1.3km 비율로 번지고 있으며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의 거대한 소 목장들에 큰 위협이 될지 모른다고 덧붙였으며, 허시 박사는 현재 감염 지역이 이미 브라질 크기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트리파노소마증이 광우병과 관련이 없으며 인간에게는 해롭지 않다고 밝혔다.

스페인 돼지콜레라 전염 확산 비상

스페인의 돼지전염병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97년 3월에 처음으로 카탈로니아 지방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는데, 현재는 수도 마드리드 지방으로 전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로올라 데 팔라치오 농업장관은 스페인의 돼지콜레라 사태 극복을 위해 EU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에서는 돼지콜레라 전염사태로 작년에 이미 카탈로니아 북부에서 60만마리 이상의 돼지를 도살했다. 현재 돼지콜레라에 전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돼지수효는 약 80만마리로 전국 사육돼지 규모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까지 스페인의 돼지콜레라 전염사태는 마드리드 북동부에 위치한 카탈로니아 지방에 국한되었으나 1월 둘째주에는 마드리드 남동부에 위치한 톨레도 근처로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1,000마리가 도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프랑스 자돈수출 확대 움직임

97년 8월의 자돈생산용 모돈이 전년비 2%증가하였으나 신장률은 점차 저하되고 있는 추세이며, 주요생산지인 부루다뉴에서 감소하고 와루, 바레 지구에서 증가하고 있어 주산지 이동양상도 엇볼 수 있다. 그리고 20kg이하의 자돈 사육두수가 385만두로 전년보다 10% 상회하고 있어 전통적인 자돈수출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養豚**